

사회

운전면허 적성검사 안내서 보냈더라도...

미필 범칙금 일방 부과 잘못

광주지법 판결... 광주·전남 4천여명 해당

운전면허 적성검사 안내서가 발송됐다고 하더라도 대상자가 이를 제대로 수령하지 못해 적성검사를 받지 못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민원인 등에게 고지서 등 공문을 발송하는 행정 및 수사기관 등이 고지 의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해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운전면허 시험관리단에서 두 차례에 걸쳐 통지서를 보냈다고는 하지만 피고인이 일관적으로 자신의 적성검사기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인식하고도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흥 변호사가 정기적성검사와 관련 1종과 2종 면허의 차별, 적성검사 미필에 대한 형벌 부과 잘못, 구 도로교통법의 적성검사 기간 통보 의무 미규정 등을 이유로 신청한 구 도로교통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구 도로교통법이 헌법이 명시한 평등의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 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민중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광주지부 조합원 300여명이 25일 오전 광주시 서구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앞에서 표준임제와 노동기본권 쟁취, 운송로 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투쟁 출정식'을 하고 있다.

광주·전남 물류대란 조마조마

광양항 화물차 60% 운행 중단

민중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첫날인 25일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우려와는 달리 큰 물류 운송 차질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물류 차질은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가운데, 출정식과 선전전을 갖고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광주지부의 총파업에는 기아차 광주공장, 삼성전자 광주공장, 금호타

보고 있다. 이날 오후 6시 현재 광양항만에서는 광상시 60%의 화물차가 운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비상대책본부는 예상했던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편의 고지 관행 부당"

적성검사 승소 흥현수 변호사

광주에서 활동중인 흥현수 변호사가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관련 피고인 신분으로 정식 재판을 벌여준 것은 행정 편의적인 발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안내문을 보내고 해당 운전자가 받아 봤는지와 상관 없이 범칙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흥 변호사 역시 지난해 2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 광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범칙금을 부과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해 편의적인 고지업무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전면허 적성검사기간에 대한 안내통지문을 주가지로 2차례 보냈다고 했지만 이를 받아보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마치 고의로 적성검사를 안받았 처럼 경찰청은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 결정 통지서, 즉 범칙금을 부과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내가 그랬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서명안한 수채화 등 5000만원 어치 그림 도둑

취미 삼아 아마추어 동양화 작가로 활동하는 서모(48)씨. 그는 얼마 전 갤러리를 운영하며 수채화를 전문적으로 그리는 서양화가 양모(71)씨를 알게 됐다.

서씨는 한 달에 한 두 번씩 양씨를 찾아가 "화백님의 서명이 안 들어간 수채화 몇 점을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동호회 회원들에게 '내가 다른 그림도 그릴 수 있다'라며 실력을 '과시'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지난 7일 오후 6시50분께도 그랬다. 우연히 광주시 남구 양씨의 갤러리에 들렀다. 문은 열려 있었지만 아무도 없었다. 서씨는 주인 없는 갤러리와 작업실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양씨가 스케치북 사이에 끼워둔 작품들을 보는 순간 욕심이 생겼다.

광주지법 본원서도 민사배심조정 성사

귀농자-장성군 '계약금 반환' 중재

지역주민들이 1년 이상 계속된 민감한 민사소송의 조정자로 나서 합의 이끌어냈다. 광주지법 제7민사부(부장판사 최인규)는 25일 "귀농자 4명이 장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소송'에 광주지법 최초로 민사배심조정제도를 도입, 배심원들이 제시한 중재안을 장성군과 귀농자들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매년 민사배심조정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지법 본원에서 조정이 성사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오후 3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이번 재판에는 장성군 주민 10명이 배심원으로 참가, 재판에 대한 설명과 관련자들의 보충 진술을 들은 뒤 40여 분간 평의를 갖고 배심원단 조정안을 제시했다.

2차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도 1심 재판부의 판단과 궤를 같이 했다. 즉 농어촌 뉴타운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장성 드림빌 임대차 계약은 원고인 귀농자들의 채무 불이행에 따라 해제된 것으로 원고들이 장성군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반환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Advertisement for an allergy clinic. Title: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Features a photo of a doctor and text describing the clinic's approach to treating chronic allergies and sinusitis.

Advertisement for Haneuri Hospital. Title: '전남 영암 하누리병원 경매물건'. Lists auction details including location (Gwangju), lot numbers, and prices. Includes a photo of the hospital building.